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농업용수 공급

예년에 비해 38일 앞당겨 급수 시작

기사입력시간 : 2022/03/13 [16:53:00]

이명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금성면 간척농지 일원 월동작물(마늘) 생육 부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7일 금성면 관내 2개 저수지(북부, 용포저수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급수를 공급했다.

이번 영농급수는 강수부족에 따른 갈사 간척농지 월동작물(마늘 65ha)의 생육부진과 고사현상이 우려돼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예년에 비해 38일 앞당겨 급수를 시작했다. 한편 이를 위해 농업인과 하동군, 금성면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배수로 청소와 물꼬 막기 등을 실시하며 말단부까지 원활한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펼쳤다.

금성면에 위치한 북부, 용포저수지(총저수량 54만톤)는 청암면에 위치한 하동호의 청정용수를 공급 받아 금성면 일원 간척농지(수혜구역 427ha)에 공급함으로써 가뭄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겨울 가뭄 대비 및 밭작물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는 수량 확보를 위한 뚝 높이기 등 추가적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동계작물 급수와 관련해 손옥용 지사장은 “농정의 변화에 발맞춰 그동안 벼 중심의 수자원관리에서 벗어나 동계작물 등 타 작물 급수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동군, 읍·면, 농업인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물 절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 직원에 당부했다.